



의과대학장 “어틸러 미세터(Attila Miseta)”박사

친애하는 한국인 학생 여러분, 그리고 학부모님 여러분.

저희 페치 의과대학은 헝가리 남서부 지역(“Trans-Danubian” region) 유일의 국제 의학 교육기관으로써, 의학 및 치과학을 필두로하여 약학과 생명 공학 등에 이르는 다양한 “의학 교육”의 산실로 자리잡아왔습니다. 저희 의과대학의 슬로건인 “기회는 준비된 자의 편”이라는 “루이 빠스퇴르”의 말을 통하여 “최상의 교육 수준”에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. 이는 다시 말해, “박식함을 갖춘 재학생”이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최고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도록 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. 이와 더불어 지난 10 여년 동안 총 52 개 이상의 국가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우리의 수 많은 학생들이 자랑스럽기 그지없습니다. 비록 급속도로 발전하는 첨단 과학 기술로 인해 언제나 “전문화”의 정도가 더욱 더 심화되고는 있지만, 스승과 학생 관계는 물론이며 환자와 의료인 사이의 “대인 관계”를 바탕으로 하는 “가장 직접적이고 근본적인 학문 분야”가 바로 “의학 교육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때문에, 보다 폭넓고 깊이있는 교수법을 일구어가는데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며, 특히나 최근 10 여년 간에 걸쳐 배출해낸 많은 “학생 연구원”들의 뛰어난 성장 결과는 이러한 저희 의과대학의 교육 목표를 잘 드러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러한 교육 모토를 바탕으로, 저희 의과대학에서는 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유럽과 미주 지역 등의 우수한 의료 기관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.

저희 페치 의과대학의 졸업생들은 모교와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갈 뿐만 아니라, 동문 네트워크를 통해 지난 수 십년 간에 걸쳐 성공적으로 졸업생과 재학생이 꾸준히 그 영향력과 의료인으로서의 자질을 이어갈 수 있었으며, 그 결과 많은 학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모교에서의 의학 박사 과정 및 수련의 과정 등의 수료 후 프로그램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. 또한, 꾸준히 저희 페치 의과대학의 교육 수준을 드높이고자 보다 많은 유용한 학내 특별



활동(*학생회, 합창단, 미국 교환 학생 프로그램, 각종 전시회 및 지역 내 봉사 활동 등)을 확대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. 이에, 우리 학생들 모두가 뛰어난 수준의 의료 지식을 바탕으로 함으로써,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직업인 “의료인”이 되기위한 모든 준비를 다 함은 물론이며, 전 세계 각지로 뻗어나가 훌륭한 일들을 해낼 수 있는 행동하는 지식인이 될 것임을 확신하는 바입니다. 모쪼록, 한국인 학생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고유한 정서적,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하여 서양의 의학 교육을 더함으로써 유능한 국제 의료인이 되어, “여러분만의 대한민국”이 아닌 “세계인 모두의 코리아”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며, 저희 페치 의과대학이 그 꿈을 일구어가는 일터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.

페치 의과대학장

어틸러 미셰터 박사



PÉCSI TUDOMÁNYEGYETEM
UNIVERSITY OF PÉCS
한국인 학생 지원 담당 서비스 센터
Korean Student Service Center